



출협, 25회 책의날 기념식 최원영 사장, 출판유공자상 수상

지난 10월 5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의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책의 날'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조윤선 국회의원,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등 내빈과 200여명의 출판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책의 날을 받드는 글'낭독, 기념사, 축하 및 시상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윤형두 출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좋은 책 출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공로로 영예의 상을 받는 수상자들과 출판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정부포상과 함께 출협이 주관하는 ‘한국출판공로상’과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상’ 시상을 통해 출판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획, 편집자와 인쇄 및 제책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도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



3



4



5

1. 25회 책의날 기념식 전경
2-4. 책의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수상자들 모습
5. 출판유공자상을 수상한 최원영 사장과 김남수 인협회장

이러 윤 회장은 “출판 환경도 e북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출판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고 이에 대한 종이 책 출판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출판환경은 출판의 제2, 제3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운선 국회의원은 “책의 날을 맞이한 출판인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출판업계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플랫폼의 개발 및 다양한 공동사업을 구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언호 한길사 대표의 25명 수상

영인정보시스템 최원영 대표는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은 김언호 한길사 대표가 육관문화훈장을, 김광식 책세상 편집주간이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고세현 창비 대표,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김성룡 교보문고 대표, 임만호 크리스찬서적 대표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이상룡 청아출판사 대표 등 20명에게 수여됐다.

특히 올해는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출판사 대표 외에도 출판문화 발전에 공적이 있는 편집주간, 교수, 에이전트 등도 추천 대상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중국신문출판총서(중국 국무원 직속 행정부서) 산하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의 선주방(沈菊芳) 출판발행연구 잡지사 사장이 한중 출판 학술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출판 교류 협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 문화 산업의 근간인 출판이 국가 사회 경쟁력을 키우는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출판문화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